80여개 개관 콘텐츠 '문화가 흐르는 광주' … 시민의 삶, 문화가 된다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① 광주, 문화수도를 꿈꾸다

'문화발전소'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오는 2015년 개관하면 컨템퍼러리(contemporary) 공연물과 아시아 문화를 새롭게 집약해 보여주는 창작물 등 색다른 공연·전시문화를 광주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중앙무대에서 공연됐던 작품의 2차 소비자였던 광주·전남지역민들이 '메이드 인 광주'(Made in gwangju) 창작물의 첫 번째 관객이자, 최신 문화를 누리는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우선 2015년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세계 유명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공연물과 페스티벌 등 80여편의 작품을 문화전당의 아시아예술극장과 민주평화교류원 등 주요 공간에서 연중 감상하게 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7월께 문화전당 5개원(아시아예술극장·문화창조원·문화정보원·어린이문화원·민주평화교류원)에서 선보일 공연물이 올 상반기부터 제작된다.

세부적으로 아시아 예술극장에서는 2015년 개관 페스티벌(7~8월)을 개최하고 이듬해부터는 봄(3~6월), 가을(9~12월) 시즌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시아 동시대 예술작품 80여편을 연중 선보인다.

세계 주요 작가들이 아시아예술극장 공연물 창작에 대거 참여하는 것도 눈에 띈다. 2011년 세계의 영향력 있는 미술작가 1위에 선정된 아이웨이웨이(Ai weiwei·중국)와 작품 제작을 추진 중이며,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남아공), 진은숙(한국) 등과 새로운 오페라를 만들 예정이다. '100% 베를린'으로 유명한 리미니 프로토콜(Rimini Protokoll·독일)과는 광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100% 광주'(가칭) 공연 등도 제작할 예정이다.

문화창조원에서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7개 전시가 열린다. 창조원의 상설전시 '아시아 도시 파빌리온(가칭)'은 아시아의 도시·언어·미디어·종교·인종 등 문화를 체험하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아시아정보원은 문화콘텐츠 창작의 원천소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스토리, 조형상징·예술, 의례·공연예술, 의식주, 이주·정착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동시대 아시아문화를 연구하고 공연·전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어린이문화원은 '신기한 아시아(자연과 생활)', '지혜로운 아시아(숫자와 문명)', '멋있는 아시아(음악과 예술)'를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가 열린다.

광주 민주화운동 유적으로 구성된 민주인권평화기념관에서는 광주항쟁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는 풍성한

'메이드 인 광주' 첫 관객
최신 문화의 수혜자로
세계 주요작가 대거 참가
민주·인권 가치 감성공감
5·18 희생자 추모 공간

전시가 예정돼 있다.

전시들은 '5·18 광주항쟁의 정신을 승화시켜 생동하는 아시아의 문화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감성의 공명터'에 맞춰져 있다. 광주항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술 시각으로 조망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관람객들이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전시의 주된 개념은 '열흘간의 나비떼'로 5월 광주항쟁의 중요사건이 전개된 10일간을 기록하고, 변태과정을 거친 뒤 홀연히 사라지는 나비와 같이 희생된 시민들의 이미지를 담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옛 경찰청본관(가칭 민주관)은 광주항쟁의 주요 사건이 '빛의 정거장', '아우성', '깨어진 거울' 등을 주제로 펼쳐진다. 전시 가운데 하나인 '빛의 정거장'은 광주항쟁의 상징적 공간인 도청 앞 분수대의 모형을 설치한 뒤 그 주변에 돌장승을 배치해 민주화 열기를 조명했다.

'아우성' 전시작품은 광주항쟁 진압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이 작품은 관람객들이 손으로 만지면 영상과 글씨가 움직이는 체감형으로 제작된다. 작품 '깨어진 거울'은 유럽 전위예술가인 피스톨레토씨의 작품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시민들을 겨눠 집단발포가 이뤄졌던 금남로 현장을 거울에 담을 예정이다.

옛 경찰청 민원실(평화관)은 민주·평화·정신이 구현됐던 광주의 기억을 되살리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최우람 작가의 키네틱아트로 제작된 기계꽃(꽃 모양의 작품)이 설치돼 '해방광주'의 환희를 조망한다. 민중화가들의 작품, 사진기자들의 5월 현장사진도 전시된다.

옛 도청회의실(러닝센터)은 '윤상원 기념관(가칭)'으로 변신한다. 그는 5월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로,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이 공간에서는 5월의 역사적 뿌리를 조명하는 동학농민운동, 4·19혁명 자료와 5월 광주를 다룬 문학작품도 볼 수 있다.

옛 도청본관(인권관)은 광주항쟁 격전지인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싸웠던 시민군들의 희생정신과 민주·인권·평화를 염원했던 마음들을 작품으로 승화한 공간이다. 설치작품 '바람의 탑'은 광주시민들의 투쟁기록을 수록한 당시 '투사회보'를 소용돌이 치는 형상으로 보여준다. 시민군 항거의 심장부인 도청상황실은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이 공간에서는 도청을 향해 오는 진압군의 전차소리, "우리를 잊지마세요"라며 절규했던 시민군들의 목소리가 육성으로 흘러나온다. 저주파 파동을 일으키도록 설계돼 시민들이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 등 5월의 감동을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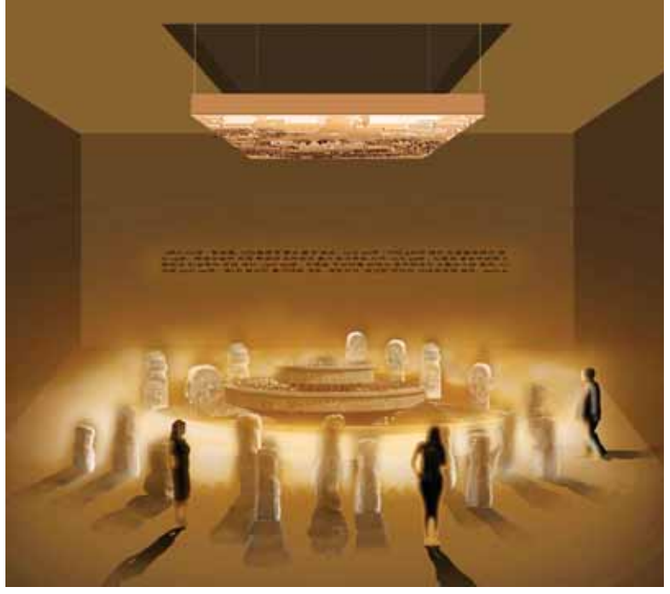
옛 상무관(메모리얼홀)은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거룩한 돌)을 세우고 5·18 당시 관(棺)을 상징하는 검은돌을 바닥에 깔아 희생자들의 추모공간으로 꾸며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에 설치될 '인권관'의 전시 개념도. 인권관에는 5월 정신의 정화를 의미하는 디지털 항아리가 놓이게 된다.

■ 문화전당 주요 개관 프로그램

행사내용	장소
개관 페스티벌·시즌제 프로그램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도시 파빌리온 등 7개 전시	문화창조원
동시대 아시아 문화연구 및 공연·전시 방향제시	아시아정보원
'신기한·지혜로운·멋있는 아시아' 체험형 전시	어린이문화원
전시 '열흘간의 나비떼'	민주인권평화기념관
'빛의 정거장' 등 광주항쟁 사건 전시	민주관(옛 경찰청 본관)
민중화가 작품 및 5월 현장사진 전시	평화관(옛 경찰청 민원실)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기념관' 변신	러닝센터(옛 도청 회의실)
'투사회보' 소재 '바람의 탑' 전시	인권관(옛 도청 본관)
"우리를 잊지마세요" 시민군 절규 육성 체험	인권관(옛 도청 상황실)



광주일보 여론조사 '전남지사 1위' 박지원 의원
"호남에서 안신당 지지도 약간 꺾여나가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3일 광주일보의 전날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 "창당도 되지 않았던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구 정치권에 대해 태풍처럼 타격을 가했지만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약간 꺾여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통화에서 "오늘 아침 광주일보 보도에 의거하면 전남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43.5%, 안철수 신당이 23%로 뒤집히고 있다"며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모이는 인사들이 구정치 인사들이기 때문에 국민이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선거가 조금 더 가까워져 오고 구체적인 인사들이 거명되니까 오히려 민주당 지지세로 다시 합쳐지는 것"이라며 "중진 차출론이 나오면서 안철수 신당보다는 민주당에 인물들이 더 있다는 평가가 나온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남도지사 선거 판세와 관련, "다자구도 지지도를 보면 내가 21.3%고 주승용이 16.9%, 이낙연이 16.2%, 김효석(전)의원이 11.4%"라며 "나는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높게 나오고 있고 주승용·이낙연 의원도 김효석 의원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처럼 이낙연·주승용 후보가 김효석 후보보다 더 높다고 하면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데 제가 구태여 지방에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에서 만약에 간곡하게 요청을 한다면 그럴 때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는 생물이니까 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 할 겁니다"며 출마 여지를 열었다.

그는 또 "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묻자 "현재 김한길 대표의 임기가 상당 기간 보장돼 있다"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걸 준비하면서도 기회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야권연대와 관련해선 "호남에서는 어차피 피나는 경쟁을 하더라도 비호남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역인 영남권에서는 연합 연대를 해서 단일 후보를 내는 것이 새누리당에 승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 :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 :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 : 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 :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 :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 : 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 : 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충국생명 앞) : 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 :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 :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 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옆) : 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역 앞) : 031)593-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 : 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 : 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 : 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 : 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 : 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 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 : 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 : 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 : 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 : 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 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 : 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 : 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 : 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 : 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 : 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 : 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 :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 : 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 : 041)553-2888 공주점(공주근사거리) : 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 : 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 : 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 : 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 : 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 :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